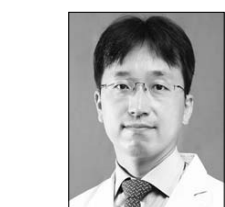


건강 칼럼

자각증상 없어 발견 늦는 척장암 위험인자는?

척 장은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호르몬 등 여러 호르몬을 생성하는 췌장실질과 단백질, 지방을 분해하는 소화효소가 배출되는 췌관으로 이뤄져 있다. 췌장암은 대부분 췌관에서 발생하는데 췌장이 여러 장기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 많이 생겨도 발견이 쉽지 않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췌장암 환자수는 2016년 1만 6000명 정도에서 2020년 2만 2000명가량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증상이 없고 발견이 어려워 생존율이 좋지 않은 암이기도 하다. 췌장의 기능이 떨어지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서구식 식습관이다. 단백질과 지방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식습관은 본인의 췌장 분비 능력보다 더 많은 양의 췌장액을 만들어내고 분비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췌장세포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 노화나 음주, 흡연, 췌장염 등도 췌장 기능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췌장염에는 급성췌장염과 만성췌장염이 있다. 급성췌장염은 보통 복통이 동반되지만 만성췌장염은 상당히 많은 췌장 세포가 망가져야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진행된 이후에 발견되게 된다. 췌장은 음식물이 지나가는 길이



박재우
기톨릭대 대전성모병원 외과 교수

아니라 음식물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아서 많이 생기더라도 상당히 진행할 때까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 내시경을 넣어서 직접 들여다 볼 수 없어 초기에 발견하기가 어렵다. 위치상 우리 몸 깊숙한 곳에 있어서 초음파 검사로도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다. 또 주요 혈관과 바로 붙어 있어서 조금만 주요 혈관을 침범해도 수술이 어려운 특성이 있다. 따라서 췌장암은 특별한 자각 증상이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체한 것처럼 명치와 복부에 불편감으로 내시경과 초음파 검사를 받았지만 원인이 뚜렷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급격한 체중 감소가 있는 경우 CT 등의 정밀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지방 소화효소는 췌장에서만 분비하기 때문에 췌장의 상태가 많이 나빠지면 지방분해 또한 잘되지 않아 소화 문제도 생길 수 있다. 또 새롭게 당뇨가 생겼거나 기존

의 당뇨 증세가 특별한 이유 없이 조절이 안 되는 경우 이때는 암으로 인해 췌장의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생겼을 수 있으므로 정밀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다. 흔히 알고 있는 황달이나 등쪽 통증도 생길 수 있지만 췌장암이 상당히 진행돼야 생기는 증상일 경우가 많다. 만성췌장염으로 치료중이거나 오랜 흡연 경력이 있는 경우도 췌장암 고위험군으로 정밀검사가 요구된다. 최근에는 건강검진의 활성화를 위해 췌장암이 우연히 발견돼 진료받는 사례가 많다. 대부분 양성종양이지만 간혹 악성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고 위암·대장암·폐암·유방암으로 치료해 장기 생존한 경우도 유전자적 성향으로 췌장암이 발병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정기 검진에 소홀해선 안 된다. 유전에 대한 부분은 직계가족 내 췌장암의 발생이 2명 이상이면 가족성 췌장암이라 진단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이런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 췌장암의 가장 중요한 치료법은 암을 완전히 제거하는 수술이다. 췌장암은 1~2기는 수술이 가능하지만 3기 이상일 때는 수술보다 다른 치료를 먼저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췌장암은 환자의 80% 정도가 진단 당시 3, 4기에 해당돼 10명 중 2~3명만이 수술을 할 수 있다. 최근에는 더 효과적인 항암치료제의 등장으로 항암치료를 통해 암의 기수를 낮추고 난 뒤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또 진단 당시 수술이 가능해 보이지만 불완전한 절제가 예상될 때에도 선행 항암치료를 시행해 췌장암의 크기를 줄이고 미세 이된 부위의 양세포를 없앤 후 수술을 진행하면 생존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진행된 췌장암으로 수술이 어려운 환자는 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을 이용해 치료와 통증 완화를 동시에 진행한다. 췌장암은 전조증상이 없고 증상을 자각했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5년 생존율 추이를 봤을 때 다른 암에 비해 생존율이 매우 낮은 편이다. 특별한 예방법은 없지만 흡연, 비만 등 고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없애도록 생활습관을 바로잡아야 하고 특히 흡연은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췌장암 위험요소인 만큼 금연이 필요하다.

사설

아베 관련 가정연합 진실

아베 전 총리 비보 이후 범민단의 진술에 근거한 각종 추측과 왜곡된 사실에 대한 보도가 여전하다.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이미 기자회견을 통해 의혹에 대한 해명과 함께 필요할 경우 경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할 것을 밝혔다. 그러나 사실 진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추측과 왜곡, 그리고 편파적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일본과 한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난무하고 있다. 가정연합과 신도들은 심각한 명예 훼손과 인권 손상을 겪고 있다. 일부에서는 맹목적 물리적 증오와 필박 사태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가정연합은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 평화 이상을 비전으로 한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초종교·초국가·초이념적으로 전 세계 190여개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다. 최근 남북공동수교국 157개국과 연대한 "한반도 평화사명" 2022"는 한반도 평화통일과 항구적인 평화체계를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 일부 언론의 보도를 통해 야마가키 데쓰야 용의자의 가정 환경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세상에 알려졌다. 어려운 처지에 대한 동정의 여론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가정연합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참사랑으로 가정의 화합과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사건은 아직 수사 중이다. 용의자의 동기와 사건의 배경에 관한 진술은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밝혀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보도는 절제하며 이루어져야 하고,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범행의 동기를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경찰의 수사와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밝혀져야 한다. 왜곡되거나 잘못된 내용이 여과 없이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할 때이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무분별한 보도에 대한 자제가 절실하다.

남원 춘향게이트볼 최강 클럽

게이트볼의 인기가 여전하다. 특히 더 이상 백발의 노인만 즐기는 운동이 아니다. 게이트볼은 그동안 노인들의 전유물로 치부됐다. 그러나 게이트볼이 최근 남원에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생활스포츠 클럽으로 급부상했다. 새로운 전성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남원 춘향게이트볼 팀은 최근 3년 만에 열린 '2022 전국 생활체육대축전'에서 전북 선수단으로 게이트볼 종목에서 우승했다. 지난 6월 9일부터 울산에서 이틀간 열린 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전북 선수단은 남자 2팀, 여자 1팀, 혼성 1팀 등 총 4팀이 출전했다. 기본 출전 팀이 6팀인 상황에서 4팀만 출전한 상황이었다. 남원 춘향게이트볼 클럽은 약 8년 전에 만들어졌다. 뜻있는 게이트볼 회원들이 모여 동호회를 만든 것이 시작이었다. 출발 당시에는 노인들을 주축으로 했다. 노인회 분회 성격의 동호회로 결성돼 있었다. 이런 편견을 과감히 깬다. 젊은 단원 중장년 게이트볼 팀으로 만들었다. 학교교사, 체육회 직원, 세무사, 택시기사, 자영업자, 공무원 등 다양한 직업군에 나이도 50대 초·중반 등 젊은 중장년층이 회원들로 구성돼 있다. 20여명의 회원들은 매일 새벽 5시30분부터 7시까지 가까운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훈련하고 있다. 제56회 전북도민체전에서 종합우승을 수상한데 이어 지난해 제1회 안동 하회달배 전국 게이트볼대회 우승, 2021 도 협회 회장기 우승을 했다. 얼마 전 도민체전에 선수로 출전했던 5명의 엔트리는 이미 전국적인 대회를 휩쓸고 다닐 정도로 게이트볼 종목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전국을 넘어 세계 최강 자라리까지 넘보는 남원 춘향게이트볼 클럽은 김태우 코치(50)의 역할이 컸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기고문

'저금리 대출' 전화금융사기 꼼꼼하게 확인해야

며칠 전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통화 중 "정부에서 기존 대출이자보다 싸 이자로 대한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를 받고 서류를 준비중이라는 말을 듣고 직감적으로 전화금융사기임을 느끼고 만나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려고 인출해서 보관중인 800만원의 피해를 예방한 적이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기존 대출 카드사와 및 대한대출 은행 등 확인해 보니 모두 사실인 것처럼 꾸며 피해자가 속았으며, 500만원 인출 시 자동으로 경찰에 연락되어 대출할 수 없으니 400만원씩 2회에 걸쳐 인출하여 집에서 보관하고 있

으면 채권추심팀이 현금을 반으로 간다고 하였다. 이에 필자가 자신을 직접 만나 해당 은행에 방문해서 저금리 대한대출 계획이 없음을 확인하고 그제서야 전화금융사기라는 것을 알아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경찰의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대한대출"을 빙자한 대면권취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범죄 수법이 지능·고도화되면서 검거 인원 감소 및 피해 금액 증가로 심각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21년도 발생건수 12건에 피해액이



김근수
진안경찰서 마이피해소 순찰팀장 경감

1억 9,900만원이었다. 이후 22년 7월까지 발생건수 8건에 피해액이 1억 6,000만원에 달하고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금융기관 창구에 교역의 대역인출시 신속한 파출소

연락 홍보활동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저금리 대한대출 사기형", "기관 사칭형"의 핵심내용을 각 2컷 분량으로 소개하는 스티커를 자체 제작하여 관내 금융기관 현금자금이 60대에 부차중이며, 금융기관의 협조를 통해 플랜카드를 제작, 진출입로 등 적정장소에 게시하여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추석 연휴에 전화금융사기 시도가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니 휴대폰으로 수신한 전화번호 등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직접 방문 등을 통해 확인하여 피해를 예방해야 하였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